

품에서 품으로, 전래자장가는 살아있다

류형선의 《전래자장가 자미 잠이》(CD포함) 선정기

<출판저널> 5월호 '이달의 책, 이달의 저자' 선정회의가 지난 4월 12일 <출판저널> 회의실에서 열렸다.

1차 후보로는 손종흠의 《손종흠 교수의 다시 읽는 한국신화》, 김열규의 《한국인의 화》, 강영숙의 《날마다 축제》, 이상엽·임재천·강제욱·노순택의 《넓은 카메라를 들고 떠나다》, 프레데릭 J. 시문스의 《이 고기는 먹지 마라?》, 유현경의 《자폐이는 특별한 재능이 있다》, 김민호의 《낙서화가 바스키아 감옥가다》, 이도원의 《흐르는 강물 따라》《흙에서 흙으로》, 손동원의 《벤치진화의 법칙》, 류형선의 《전래자장가 자미 잠이》(CD포함)가 선정됐다.

이 중에서 《넓은 카메라를 들고 떠나다》와 《자폐이는 특별한 재능이 있다》 그리고 《전래자장가 자미 잠이》가 최종 후보도서로 올랐다. 《넓은 카메라를 들고 떠나다》는 디지털 만능주의 시대에 아날로그의 힘을 보여주는 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디지털 카메라에 관한 전문적인 정보와 함께 다채로운 서사가 담겨 있는 이 책은 카메라의 역사를 우리의 입장에서 친절하게 풀고 있다. 특히 포토에세이의 장을 새롭게 넓힌 책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자폐이는 특별한 재능이 있다》는 18세의 김진호 군이 자폐를 이겨내고 수영선수로서 일어서기까지의 과정을 그리고 있다. 개인 휴먼스토리를 뛰어넘어 자폐아 교육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며 맞춤형 일대일 교육을 시도한 엄마 유현경 씨의 헌신적인 노력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래자장가 자미 잠이》는 전승의 맥을 잃어버린 우리 전래자장가 열네 곡을 찾아 새롭게 복원해 낸 책이다. 수백 년에 걸쳐 어머니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 온 전래자장가의 장점과 교육적 효과를 바탕으로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상식들을 편안한 어조로 들려주고 있다.

<출판저널>은 '이달의 책, 이달의 저자'로 《전래자장가 자미 잠이》를 선정했다. 《전래자장가 자미 잠이》의 CD는 울산, 제주, 장흥, 서산 등 전국을 돌며 모은 전래자장가를 현대적인 편곡으로 다듬은 것으로, 자연의 소리와 함께 직접 엄마가 들려주는 듯한 느낌을 전달받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이다. 또 책에서는 전래자장가의 교육적 가치, 필요성 등을 편안한 구어체로 설명하는 등 전래자장가를 비롯한 우리 음악의 복원과 그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



'이달의 책, 이달의 저자' 5월 후보도서

《손종흠 교수의 다시 읽는 한국신화》

손종흠 지음 | 휴먼앤북스 | 312쪽 | 값 12,500원

단군신화부터 연오랑 세오녀 설화까지 우리나라의 신화와 설화 15편을 오늘의 시각으로 재해석한 책이다. 방송통신대 국어국문학과 교수인 저자가 작년 7월 EBS 특강에서 강의한 내용을 책으로 엮은 것으로 현대문명의 상징으로서의 신화를 소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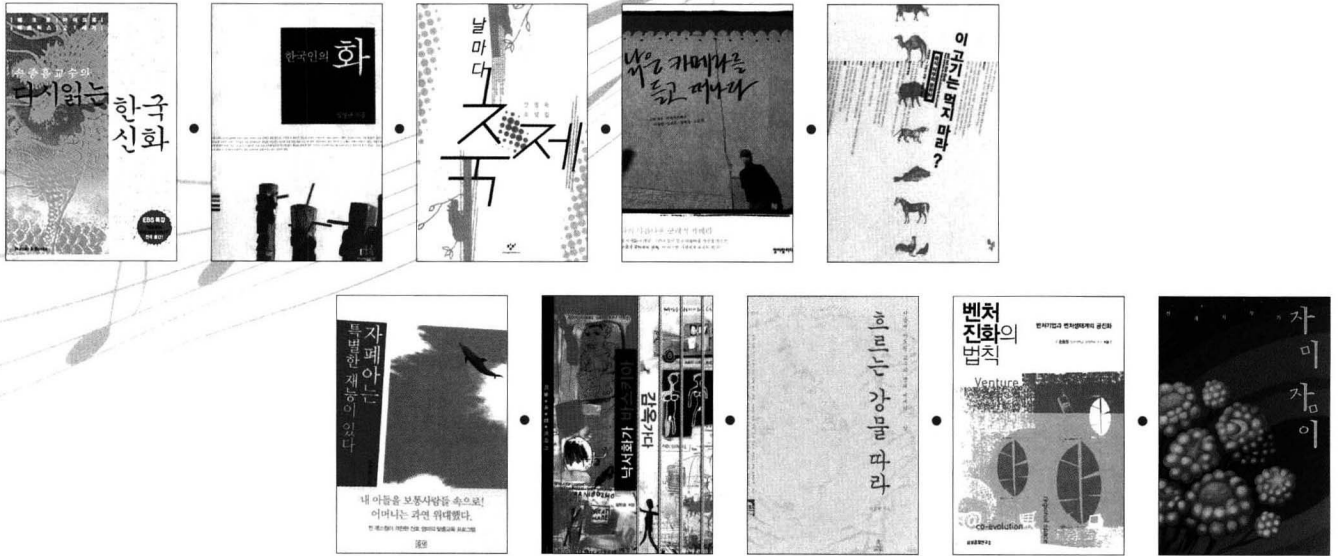
《한국인의 화》 김열규 지음 | 휴머니스트 | 458쪽 | 값 10,000원

한국인 삶의 원형을 분석해 온 민속학자 김열규 교수가 한국인의 화가 '불화사'라는 것에 착안해 불과 화가 어떤 속성을 가졌으며 한국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사회문화적으로 고증했다. 화를 극복해 내는 방법과 인간관계에서 화해에 다다른 길을 제시해 주기도 한다.

《날마다 축제》 강영숙 지음 | 창비 | 236쪽 | 값 8,500원

그로테스크한 도시 속에서 불모의 생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추적하고 있다. 환영과 실재가 혼재하는 공간 구성, 감정이 배제된 사건과 인물 묘사 등

우리애기 어화둥둥



강영숙의 장기가 더욱 원숙해졌다. 소설집에 실린 9편의 단편들은 도시의 비 인간적인 시스템을 고발, 문명사회의 역기능을 날날이 밝힌다.

《낯선 카메라를 들고 떠나자》

이상엽·임재천·강제욱·노순택 지음 | 청어람미디어 | 764쪽 | 값 17,000원
 낯고 오래된 카메라들이 여전히 훌륭한 촬영도구라는 사실을 깊이 있는 글과 생생한 사진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디지털 카메라가 사물을 깊이 있고 진지하게 바라보는 방식을 대체하고 있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클래식 카메라를 통해 이에 대한 대안을 보여주고자 했다.

《이 고기는 먹지 마라?》

프레데릭 J. 시몬스 지음 | 김병화 옮김 | 돌베개 | 660쪽 | 값 28,000원
 육식 터부의 문화사를 담고 있다. 이 책을 통해 저자는 7가지 대표적인 육류식품(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 말고기, 낙타고기, 개고기, 생선)의 터부와 이와 관련한 경제, 환경, 종교, 관습, 신봉제도, 전통 등 여러 복합적인 원인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준다.

《자폐아는 특별한 재능이 있다》 유현경 지음 | 들녘 | 296쪽 | 값 9,000원
 2002년 제8회 '아시아 태평양 장애인 경기대회'에서 두 개의 금메달을 차지한 김진호 수영선수가 자폐증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김 선수의 어머니인 저자는 수기를 넘어 실증보고서 형태를 취함으로써 비슷한 처지에 있는 장애아들의 치료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낯서화가 바스키아 감옥가다》 김민호 지음 | 예경 | 200쪽 | 값 13,000원
 이 책은 법학자의 눈으로 바라본 그림 이야기다. 법학박사이자 교수인 저자는

그림으로부터 가능한 법적 공방, 쟁점들을 연상하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고 어떤 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 흥미롭게 풀어나가고 있다.

《흐르는 강물 따라》《흙에서 흙으로》

이도원 지음 | 사이언스북스 | 226쪽 | 값 20,000원
 자연과 환경, 생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차분하게 읽어 나가기에 부담이 없는 생태학 입문서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생태학을 중심으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물과 땅과 삶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벤처진화의 법칙》 손동원 지음 | 삼성경제연구소 | 302쪽 | 값 11,000원
 한국벤처에 대해 기업진화론의 관점에서 기록한 책으로 한국벤처의 과거 궤적과 미래 진로를 조망한 책이다. 저자는 벤처부문의 성숙한 성장을 위한 인센티브 체계 구축방안을 (주)메디슨 이민화 회장이 주장한 벤처연방제와 인천 지역을 분석해 제시하고 있다.

《전래자장가 자미잠이》(CD포함) 류형선 지음 | 보림 | 200쪽 | 값 18,000원
 울산, 제주, 장흥 등 전국을 돌며 모은 전래자장가를 현대적으로 편곡한 CD와 전자자장가의 교육적 가치, 필요성 등을 설명한 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머니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내려 온 전래자장가를 통해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상식들을 편안한 어조로 들려준다.